

## 大學生과 就業

李 茂 根

(서울大 農業敎育科 副敎授)

## I. 序 論

대학시절은 中·高等學校에서의 타율적이고 억압된 생활과는 달리 인생에 있어 眞理와 浪漫을 추구하고, 자율적인 思考와 생활로부터 自我에 대한 意識을 高揚시켜 나갈 수 있는 시기이다.

또한 대학은 하나의 사회조직체로서 大學自體의 文化的·社會的·制度的 特性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大學生活을 하는 개인으로 하여금 폭넓은 知識과 人格을 함양할 수 있는 道場으로서 심신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겪게 한다.

특히 大學生의 심리적인 변화에 있어서의 主特徵은 개인의 價値體系와 自我概念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自我正體感(ego-identity)의 발달과 같은 의미로서, 대학생 시기는 어느 정도 自我正體感이 확고해지는 시기로 개인의 주체적인 本質을 형성하게 되고, 安定性, 統合, 自我의 再認識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대학시절의 전전한 自我概念 및 自我正體感의 발달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일에 관한 구체적인 관심으로부터 職業意識의 發達에 영향을 미쳐 결정적인 進路選擇을 좌우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학시절을 통해 많은 심리적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고 自我를 이해하며 自我正體의 성취상태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은, 인간

으로서 올바른 人生觀, 世界觀, 職業觀을 형성하며 단조된 삶을 누리기 위한 준비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차 大學을 卒業하고 원하는 職業을 選擇하여 원만한 사회인으로서 職業生活에 적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自我概念의 발달과 더불어 올바른 職業意識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생 시기에 알맞은 進路指導를 통해 직업적 능력을 개발하고 職業選擇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學校, 家庭, 社會가 공동지원을 해야 한다. 進路選擇의 問題는 학생 개인의 人格 修養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社會的·國家的 차원에서의 직업 안정이나, 人力의 適材 適所 매치 등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進路發達(career development) 理論을 통해 본 大學生의 位置를 살펴보고, 이 시기에 필요한 進路準備 사항을 검토한 후에 進路選擇의 重要性과 節次, 進路選擇 現況 및 問題點, 그리고 그 改善方案에 관하여 論議하고자 한다.

## II. 進路發達(career development)의 觀點에서 본 大學生의 位置

個人的 要求나 年齡 또는 性別에 따라 하는

일의 性質이나 內容이 다를 수 있지만 인간은 누구나 일을 하면서 일생을 보내게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이 일생을 통하여 하는 일을 총칭하여 커리어(career)라고 한다.

인생을 커리어의 발달 단계(career development stage)에 따라 구분하면 커리어 認知(career awareness), 커리어 探索(career exploration), 커리어 準備(career preparation) 그리고 커리어 改善 및 維持(career maintenance and improvement)로 구분할 수 있다. 커리어 認知 단계는 就學前부터 시작하여 國民學校 敎育을 통하여 일의 세계를 상상하고 인지하는 과정이다. 커리어 探索 단계는 주로 中學校 시절로 자기의 適性, 興味, 能力 등을 고려하여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좀더 구체적인 경험을 한다. 또한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희망과 생각하였던 일의 세계가 一致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자신의 進路를 잠정적으로 판단하는 단계이다. 커리어 準備 단계는 자기가 잠정적으로 選定한 일의 세계에 종사할 수 있는 能力을 개발하는 단계로 學生에 따른 個人差가 있으나, 高等學校, 또는 專門大學, 大學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커리어 維持 및 改善 단계는 職業의 세계에 종사하게 된 후 변화하는 產業社會에서 자기가 맡은 職務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現職 敎育을 통하여 能力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계이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볼 때 大學生은 대체로 커리어 準備 단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단계는 어느 한 단계를 따로 구분지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한다. 즉 커리어의 觀點에서 볼 때, 한 인간의 생애는 어느 시기에 순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發達課業을 제대로 達成해 가는 가운데 형성되는 것임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커리어 準備단계인 대학시절에 있어서 職務의 選擇이나 進路의 決定은 卒業에 임박해서 그 당시의 狀況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決定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 4년간 계속 자기 자신의 적성, 흥미, 능력, 주변 환경 등을 면밀히 분석 이해하고 자신의 過去, 現在, 未來의 希望을 구상하고 이에 적합한 職業을 選擇하고 종사

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能力을 개발하고 준비하여야 할 단계에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大學生들이 자신의 진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하고, 그에 맞는 職業을 선택하고 준비하며, 장차 그 職業에 적응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自我에 대한 認識 및 概念을 구체화함으로써 자신의 能力, 인성, 특성, 흥미, 대인관계, 외모 등 모든 自我特性을 현실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자기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職業과 관련된 情報를 기초로 進路目標을 세운다.

둘째, 일의 세계와 관련하여 일의 種類, 일의 社會的 意義, 職業世界의 構造 및 特徵, 변화하는 職業의 要求條件과 필요한 技術 및 雇傭傾向, 生産, 分配, 消費에 대한 基本概念 등 일의 세계에 관해 이해한다.

셋째, 자신의 進路를 현명하게 계획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며 자신의 것을 選擇할 수 있는 자율적인 意思決定 能力을 기른다.

넷째, 일을 하는 데 있어 타인과 협동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모든 일에 貴賤이 없고, 일을 통해 인간이 社會的 存在로서의 意義를 다할 수 있으며, 心理的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는 일에 대한 건전한 態度를 양성해야 한다.

### Ⅲ. 進路選擇의 重要性과 一般節次

구체적인 職業을 선택하기에 앞서 職業과 職業選擇의 重要性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직업은 인간에게 있어 生計維持의 수단일 뿐 아니라, 삶의 理想을 實現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즉 직업은 각 개인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일 뿐 아니라, 社會的, 心理的 必要를 만족시켜 주는 것으로, 개인이 어떤 職業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곧 그의 일생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올바른 職業선택을 위한 進路指導는 어떤 형태로든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진로지도는 就業을 바로 눈 앞에 둔 大學卒業生뿐 아니라, 初等學校, 中等學校에 걸

쳐 계속교육에 의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더구나 現代 産業社會는 技術이 급속하게 발전됨에 따라 직업이 더욱 分化되고, 새로운 職種이 生成되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전문적인 指導가 없이는 개인에 알맞는 직업을 올바르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즉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고 직업의 세계가 항시 변하는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進路의 계획, 선택, 준비 등에 관한 指導가 요청되며, 이는 개인의 自我實現뿐 아니라, 人的 資源의 適材適所 배치에 의한 國家發展의 次元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進路選擇을 위해서는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進路指導가 요구된다. 이 때 진로지도는 理論的 體系에 근거하여 전개되어야 하는데, 이점에 있어서 進路發達에 관한 학자들의 諸理論은 進路指導에 示唆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진로지도의 意味와 더불어 進路發達에 관한 대표적인 理論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進路指導(career guidance)는 직업지도, 직업상담, 진로상담 등 유사한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직업지도에 비하여 폭넓은 개념으로 進學指導와 就業指導를 포함한다. 따라서 進路指導란 개인의 직업적 발달을 촉진시켜 자신의 進路를 계획하고 준비하여, 그에 따른 職業을 選擇하며 선택된 직업에 適應하고 계속 發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로지도의 目的은 개인으로 하여금 自身の 進路를 의식하고 계획, 준비하며, 적절한 시기가 되면 그 직업을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에 적응,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경우 大學內에 제한여건에 맞고 대학생의 心理的·社會的 發達水準에 적절한 진로지도가 필요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흐름을 달리하여, 진로지도를 위한 進路發達의 諸理論을 Herr와 Crammer(1972)의 분류방법에 따라 特性理論, 意思決定理論, 社會理論, 心理理論, 發達理論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特性理論은 Parsons, Hull, Kitson 등이 주류를 이루는 이론으로, 개인의 특성을 객관적인 검사방법에 의해 밝혀 내어 그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意思決定理論은 Gelatt, Hilton, Hershenson과 Roth, Katz 등이 주류를 이루는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케인즈의 경제이론에 직업선택 행동을 적용하여, 직업선택은 하나의 意思決定 過程으로서 개인은 여러 가지 선택가능한 직업 중에서 자신의 투자가 최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職業을 선택한다는 점을 요지로 삼고 있다.

社會理論에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압력집단, 역할지각 등이 직업선택과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으로 개인을 둘러싼 社會·文化的 環境이 개인의 職業的 選擇을 좌우한다고 한다.

또한 心理理論은 진로발달에 대한 心理的 接近方法으로 개인의 內的 動機, 또는 過程變因을 중시하여 이에 따라 직업을 택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다시 정신분석학적 이론, 인성이론, 위상이론으로 나뉘는데, 결국 개인의 직업선택은 욕구충족과 불안제거의 행위, 즉 인성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다는 理論이다.

發達理論은 人間發達의 개념을 진로발달에 적용한 것으로 직업적 발달이란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마찬가지로 직업에 대한 지식, 태도와 기능이 어려서부터 발달하여 청년기에 성숙된다는 개념이다. 이상의 理論들을 종합해 볼 때, 개인의 進路는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어릴 때부터 계속적인 주변의 관심과 지도가 수반되어야만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현명한 進路選擇 및 決定에 이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이 이상적인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거쳐야 할 節次 및 過程을 살펴보기로 한다.

職業을 올바르게 選擇하기 위해서 개인은 첫째로, 자신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자신의 적성, 흥미, 학력, 성격, 지능, 건강, 가정환경 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로, 職業의 世界를 탐색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職業를 발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직업에 관한 다양한 情報를 신속히 입수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정보를 통해 職業名, 일의 성질, 요구되는 정신적·육체적 능력, 자격조건, 직업환경 및 분위기, 취업방법, 수입과 승진의 기회 및 안정성, 그 직업의 전망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세째로, 자기에게 적합한 特定職業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準備에 임해야 한다.

이와는 조금 각도를 달리한 것으로, 意思決定 단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직업선택의 必要性을 확인하고,
  - 둘째, 직업과 관련된 情報를 수집하며,
  - 세째, 가능한 직업을 열거하고,
  - 네째, 각 직업에서의 成就, 可能性을 예측해 보며,
  - 다섯째, 선택한 직업에 대한 價値를 평가하고 전망하며,
  - 여섯째, 합리적 판단에 의해 최선의 職業을 選擇한다.
- 이와 같이 직업의 선택은 먼저 자신을 잘 이해하고, 직업의 세계를 탐색하여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合理的인 판단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IV. 大學生の 進路選擇 現況과 問題點

다음에는 실제 大學卒業生들의 進路選擇 現況과 問題點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대학생의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가장 큰 問題點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學力萬能의 풍조이다. 즉, 대학은 자신의 人格을 연마하고 장차 사회생활에 필요한 資質을 개발하기 위한 過程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단순히 間斷을 따기 위한 수단으로 여김으로써 일류대, 일류학과를 위시하여 대학이면 아무데나 가고 봐야 한다는 思考方式의 풍조이다. 이는 적성, 흥미, 능력 등 개인의 進路發達을 무시한 進路選擇을 초래할 뿐 아니라, 건전한 職業意識의 발달마저 저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생 시기에 어느 정도 專門的

인 지식을 습득하여 장차 자기전공 분야에 就業하게 되면, 능력도 잘 발휘하고 보람도 느끼게 되며 점차 그 직업에 만족하게 되나, 전공과 상이한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 개인적으로 만족한 職業生活를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失業率, 轉職率이 높아짐에 따라 社會問題와 國家的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한편, 就業可能 職種과 관련하여 볼 때, 미국의 경우 약 22,000種에 이르는 직업이 있는데 이 중 4년제大學 卒業 以上の 학력을 필요로 하는 職種은 전체 직종의 18% 정도이고, 專門大, 高等學校 卒業 학력을 요구하는 직종이 50%, 나머지는 中學校 卒業 이하의 학력으로 종사가 가능한 직종이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大學卒業 以上の 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은 技術, 經濟, 社會, 産業 및 行政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 적용하는 專門職 정도이고, 해마다 大學卒業生이 늘어가는 반면 職種의 數는 그에 따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학을 졸업하게 될 무렵 그 해 경기가 조금이라도 不況이면 大學에 따라 就業率은 상당히 差가 많고 産業社會로부터 差別待遇를 받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女大生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하여 就業의 기회는 더욱 적고 제한되어 있어 대단히 심각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로 높아가는 高等教育熱은 産業發展에 따른 人力需給面만 고려할 때는 반드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卒業生 유치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개인의 進路選擇 문제는 비단 개인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社會·國家問題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進路選擇에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시절에서 뿐 아니라 어릴 때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進路指導가 결여되어 있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學生, 學校, 家庭, 社會, 國家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學生은 發達段階에 맞는 계속적인 進路指導의 결여로 자신의 進路準備나 選擇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많은 경우 일시적이고 근시안

적인 思考方式에서 進學과 就業을 決定한다.

둘째, 學校의 측면에서 볼 때, 대학마다 다스 간의 차이는 있지만, 初·中等學校와의 연계성 있는 進路指導가 미흡하고 직업선택을 위한 구체적인 職業 資料 및 情報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大學과 產業社會間의 유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의 人力需要와 要求度를 반영한 教育課程 運營이 미흡하다.

세째, 家庭에서 학부모는 과거의 인문 중배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못하고, 자녀의 자율적인 판단이나 적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인 進學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고, 암암리에 직업에 대한 편견을 자녀에게 심어 주는 예가 많다.

네째, 아직 우리 社會는 가정과 마찬가지로 職業에 대한 귀천의식이 根切되지 못하고 있으며, 모든 근로자의 人格을 존중해 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못하고 職業의 種類, 學歷, 性別 등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진로지도의 결과가 국가인력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대학생들의 취업난을 해결하고 進路指導의 活性化를 위한 보다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問題點에 대해서는 大學을 비롯한 사회 각 기관, 산업체, 학부모, 정부가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 V. 大學生의 進路選擇을 위한 改善方案

앞서 살펴본 問題點들은 대학생들이 自身의 進路를 의식하고 자신이 원하는 進路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각계의 관심에 의한 進路指導가 한층 활성화됨으로써 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大學은 進路相談을 위한 기구를 마련하고 직업에 관한 제반 資料와 情報를 적극적으로 수집·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언제든지 원할 때 상담에 응할 수 있는 모든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 또한 산업사회의 變化, 樣相, 高等人力 需要의 展望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社會 각 기관과 有機的인 協調 體制를 가짐으로써, 각종 정보의 수집, 정리, 제공의 일련의 활동이 계획적으로 전개되도록 해야 하며 전공과 관련된 산업체에 자유로운 견학 및 실습이 가능하도록 주선이 필요하다.

둘째, 進路指導의 活性化를 위해 정부의 專門的, 行·財政的 支援이 필요하다. 즉, 이미 美國과 같은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大學 教育課程 속에 進路指導 및 職業教育 강좌를 설정하여 교양선택으로 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進路를 의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을 해 준다. 또한 進路指導의 질적 향상과 職業教育의 전문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기관을 설치하고 충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세째, 산업체는 그들의 일의 性格, 種類, 內容, 雇傭機會, 作業條件, 報酬, 展望 등의 각종 情報를 자세히 제공해 주어야 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직업적 능력평가에 따른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학교와 有機的인 協力體制를 구성하여 進路指導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네째, 家庭에서 父母는 먼저 職業人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하며, 자녀 스스로 자신의 적성, 흥미, 능력 등에 맞는 選擇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상의 방안들과 함께 대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進路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하고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知的 資質과 合理的인 판단 능력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